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한라산 숲학교 (5)귀덕초등학교

“숲에서 ‘함께’ ‘같이’의 가치 배웠으면”

귀덕초 학생 고살리 숲길서 ‘숲 속 협동 빙고’ 게임 진행 공동의 목표 달성하는 경험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남원읍 고살리 숲길에서 숲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덕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해님 밧줄놀이’를 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18개의 줄 위에서 한 아이가 공중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18명의 아이들은 손아귀에 힘을 단단하게 주고 각자의 줄을 움켜 잡았다. 모두의 힘으로 친구를 저 높이, 멀리, 그리고 안전하게 날아올려야 한다. 아이들은 힘차고도 조심스럽게 줄을 들어올렸고 떠오른 아이는 하늘로 날아 올랐다. 그리고 19명이 모두 함께 “우리는 하나다”라고 크게 외쳤다.

이날 프로그램은 협동이라는 주제 아래 ‘숲 속 협동 빙고’라는 게임으로 진행됐다. 팀을 이뤄 9개의 미션을 통과해 빙고를 완성해내는 것이 요지였다. 게임 1단계는 2명, 다음 단계는 3명, 6명으로 점차 늘어나다 마지막엔 19명이 모두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이들에게선 장난 섞인 “네 탓이오”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다음 게임은 3명이 함께 9층 돌탑을 쌓는 게임이었다. 모난 돌, 얇은 돌, 두툼한 돌 등 갖가지 모양이라 9층 돌탑을 쌓는 일이 쉽지 않아 보였다. 한참 토의하며 돌을 주고, 또 한참 쌓다 쓰러진 탑을 다시 쌓아올리던 아이들은 웅크려 단단한 9층 돌탑을 만들어 냈다.

마스크 아래 벌써 세 번째 계절을 맞이한다. 수십 번의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을 초등학교 6학년에게도 코로나 시대, 한 해의 첫 현장학습은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었다. 숲에서 본 친구들은 교실과 모니터에서 보던 때보다 훨씬 더 반가운 얼굴들이었다.

1단계는 협동줄넘기였다. 친구와 마주 보거나 나란히 서서 줄을 넘는 아이들의 입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간혹 줄에 걸리거나 넘어진

또다른 게임은 6명에서 함께했다. 땅에 원을 그려 6명 모두의 발이 원

안에 들어가야 했는데, 단계가 높아 질수록 원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웅크리거나 서로 부딪고 안아야 했다. 크기는 발 크기가 270mm나 되는 장성한 13세 아이들이 들어가기에 원이 아주 작아 보였지만, 서로를 거칠게 들쳐 업기도 하고 격하게 껴안기도 하며 미션을 통과했다.

마지막 게임은 19명 모두의 힘이 필요했다. 18명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선 뒤 각자 잡은 밧줄을 끌어올려 친구 1명을 공중으로 띄워주는 게임이었다. 아이들마다 체력이 달라 힘 조절이 어려웠고, 팔에 힘이 빠질 법도 했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모든 친구들을 안전하게 띄워줬다.

숲연구소장 지락 김민희 대표는 “숲에서 함께 하는 놀이나 미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협동심을 배우고 공동체의 즐거움을 배웠으면 하는 뜻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 조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노후 행정선 ‘추자호’ 새로 건조한다

2022년 운항 목표로 국비 확보 응급환자 후송 의료선 기능도

황간도·추포도 등 추자도 지역 도서 낙도를 운항중인 노후 행정선인 추자호가 새로 건조돼 2022년부터 운항될 예정이다. 특히 신규 행정선은 응급환자 후송이 가능한 의료선 기능도 갖추게 된다.

제주시는 추자도 도서낙도를 운항중인 노후 행정선인 추자호를 대체할 선박 건조를 위해 내년 국비 12억원 확보와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건조 후 25년이 된 추자호는 노후에 따른 주기판 고장 등으로 운항이 어렵자 어선을 임차해 도서낙도 주민과 생필품 수송에 활용중이어서

도서낙도 주민을 위한 대체선박 건조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시는 행정선 건조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는데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되면서 1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행정선 건조를 위한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올해 1억5000만원을 투입해 행정선 대체건조 설계용역을 추진중이고, 내년엔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부터는 운항을 목표로 삼고 있다.

건조될 행정선에는 심장중격기, 산소통, 산소마스크 등 응급환자 후송이 가능한 의료선 기능도 갖춰 추자면 지역 응급환자 헬기 운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행정선을 투입해 제주항까지 긴급 이송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전국 최초 ‘제주 학교 정서지원공간’ 마련

백록초에 ‘백록마을’ 개소

제주에 전국 최초로 학생들을 위한 ‘자기돌봄치유공간’이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백록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학교 정서지원공간 ‘백록마을’ 개소식을 개최했다.

학교 정서지원공간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정서를 돌볼 수 있는 자기돌봄치유공간이다.

백록마을은 치유환경의 핵심가치

인 ▷함께 교류함 ▷익숙하고 친밀한 환경 조성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기본 안정 ▷기본 전환 ▷학령기 아이들의 심리적 특성 반영 ▷상황에 따라 환경 선택 및 조절 ▷도점심 고취 가능성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백록마을을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향후 3개교(표선중·효돈중·대정여고)에도 학교 정서지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은빈기자 seb1119@ihalla.com



가을 바다와 서퍼 지난날 31일 제주도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가을 바다를 즐기려는 이들이 파도타기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소문난 ‘제주 잼’... 알고보니 무허가

제주지방 벌금 22억 선고 2018년에만 7억 상당 이득

미등록 시설에서 과일잼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관수 부장판사)는 부정식품제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7억 500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

년 2월까지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주도 애월읍에서 잼을 만든 뒤 애월과 구좌읍 월정리 유명 카페 2곳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2월에는 애월점에서 판매하던 잼이 식품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에서 적발되자 같은 해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여 간 제주도 이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잼을 제조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허가 시설에서 잼을 팔아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소매가격으로 7억원 상당을 벌었다.

이들이 판매한 잼은 SNS에서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모 TV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등록 시설에서 1년 넘게 7억원 상당의 잼을 제조하고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공무직노조, 시설공단 반대 “운영비 증가 도민 혈세 낭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제주시설공단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운영비 증가하는 시설공단 설립조례 폐기하라”, “전문인력

하나 없는 시설공단 중단하라”, “시설공단 문제 발생 책임은 누가지냐”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들은 “지방공사와 달리 공단은 도에서 출자하는 사실상의 대행 사업비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면서 “시설공단 운영비 증가로 결국 도민 혈세 낭비할 것이다. 노동자 등의 없는 시설공단 설립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기자

우도서 땅콩 탈곡기에 부상

우도에서 60대 남성이 땅콩 탈곡기에 손목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헬기 한라매에 의해 긴급 이송됐다.

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쯤 제주도 우도

면 연평리에서 A(61)씨가 땅콩 탈곡기에 왼쪽 손목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로 접수된 소방당국은 한라매를 급파해 환자를 태운 뒤 오후 2시 51분쯤 제주도 한 병원으로 이송해 의료진에게 인계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2020-2021 제주주민 제천방문의 해

1박2일 답답하다! 떠나자! 제천여행

제천시 관광미식과 043) 641-6702 | 제천시 제주홍보사무소 064) 900-8077

제천은 코로나 사회전파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매주 화,목,일요일 출발 (11/10부터)

제주연합패키지 299,000~ (단체버스투어)

가족안심패키지 399,000~ (4~6인 단독행사)

내륙의 제주도, 슬로시티 제천
국내최대의 호수 청풍호와 케이블카 호수에 비친 단풍의 데칼코마니

제1일 제천 제주공항-청주공항-임원지-역사박물관-호변 산책-중식(현지식)-청풍호 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옥순대교(옥순봉)-석식(현지 특식)-숙소

제2일 단양 조식-도담삼봉-천동굴(또는 온달동굴)-중식(단양 마늘정식)-단양강 만천하 스카이워크-약초술 담그기 체험(약초술 증정)-(제천역-청주공항역 열차 탑승)-청주공항-제주공항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박3일 및 단독행사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굿모닝제주투어
723-3350

늘푸른여행사
726-3344

FM여행사
702-1950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파랑새여행사
744-1233

현여행갤러리
725-0818

●포함내역 : 양복항공료,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차량료, 숙박비(4인 1실), 식사 3회 ● 불포함내역 : 기사/가이드 팀 1만원, 호텔티슈료(일부 항공편)